

<표> '12년 1분기~'13년 1분기 음악산업(상장사별) 수출액 변동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2011년 수출액	2012년 수출액					2013년 수출액	
	2011년 (전년대비)	1분기 (전기대비)	2분기 (전기대비)	3분기 (전기대비)	4분기 (전기대비)	2012년 (전년대비)	1분기 (전기대비)	1분기 (전년동기)
다날	0.0	0.0	0.0	0.0	0.0	0.0	0.0	-
로엔터테인먼트	0.0	0.0	6.1	3.5	27.4	37.0	7.5	-
CJ E&M	35.2	11.6	44.8	67.0	34.6	158.0	33.3	187.1%
SM엔터테인먼트	480.3	266.9	196.2	319.1	253.8	1,036.0	170.9	-36.0%
소리바다	12.0	6.1	9.8	11.6	12.3	39.8	10.6	73.8%
예당엔터테인먼트	0.0	0.0	0.0	0.0	0.0	0.0	0.0	-
KT뮤직	0.0	0.0	0.0	0.0	0.0	0.0	0.0	-
네오위즈인터넷	0.0	0.0	0.0	0.0	0.0	0.0	2.2	-
캔들미디어	0.0	0.0	0.0	0.0	0.0	0.0	0.0	-
JYP엔터테인먼트	28.4	0.0	0.0	12.7	0.0	12.7	0.0	-
YG엔터테인먼트	318.4	39.5	114.9	136.7	243.3	534.4	167.0	322.8%
합계	874.3	324.1	371.8	550.6	571.4	1,817.9	391.5	20.8%

- 음악산업의 '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3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.8%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31.5% 하락
- '13년 1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음악산업 수출액 비중은 11.4%로 전년동기대비 1.6%p 상승
 - ※ CJ E&M 음악부문, 소리바다, YG엔터테인먼트의 '1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7.1%, 73.8%, 322.8% 증가했으며, 수출액 규모 측면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, YG엔터테인먼트 등이 음악 수출액 증가를 견인
- 음악은 '10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 하락세. '11년 1분기 이후 '12년 1분기를 제외하고, 전분기대비 상승세가 '12년 4분기까지 지속되었으나 '13년 1분기 들어 큰 폭 하락
- SM엔터테인먼트의 '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170억 9,000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.0% 감소, '11년 3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증가 기조가 이

어지다가 한류의 아시아권 및 유럽 등 인지도 제고에도 전분기대비 32.7% 하락

※ YG엔터테인먼트의 '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167억 원으로 아이돌 음악 및 공연을 중심으로 음악산업 전체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에 기여

- 소리바다의 '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10억 6,000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.8%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13.8% 하락

- CJ E&M의 음악부문 '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33억 3,000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7.1%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3.8% 하락

<그림> '12년 1분기~'13년 1분기 음악(상장사) 수출액 변동

(단위 : 억원, %)

